

16. 서울都市計劃의過去와將來

1962년 5월에 실시된 65쪽의 <대외비>

문서이다 이 문서는 당시 서울시

시계획위원회에 근무하던 판자가 쓴

글이다

이 문서는 도시계획 백서 편찬을

전기 시강의 도시계획에 대한 시경방침

을 밝히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의 머리에 밝힌 서울특별시 4장

의 인사 관제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혁명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시강의 인사 관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서울시정의 개혁사항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도시 계획 분야인 것이니

종래의 도시 계획이 정치적으로 악용

되거나 힘있는 사관들의 치부의 수단

으로 악용되었던 것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한 것은 언제 시대 고어

좋은 도시 계획선이 아무런 비판도 반영

도 없이 그냥 답습되고 있을 뿐 아

린 정부 행사들은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진행하는가 하면 시민들은 언제 이루어

질리지 모르는 계획으로 사유재산의 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뼈 아픈

상징의 회고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의 과거의 도시계획은

해부하여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수렴을

간행함과 동시에 도시 계획 백서를 발

표함에 앞서 먼저 서울 도시 계획의

시정 지치다 개운동 시민 알기 공개하여

기판없는 기판등 보급위 하는데 있다


1961년말 서울시 인구는 268만 명이었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족 주택

수는 213,000 호였고 개량이 시급한 주

택은 약 6만 호였다 1961년 현재 이

문바 <셋방> 세대수는 약 20만 세대였다

이 당시 약 100만 시민은 상수도나  해

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건축행정이 토목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것이 1948년 2월이 었다

이 당시 건축행정의 번영상을 나타내느

지표 가운데 도시계획을 무시한 제조업

(공장) 건축비가 전수가 893건이 나 되었다

하는 것이나 당시 서울 시내의 건축대사

는 67명인 불과 했는데 6년 동안 건축허

가 접수건수는 7,400^여건에 달 하였는데

건축대사사 지-재 부에 1948년과 1955년

No

No

20X10

20X10

20X10

20X10

의 두 번 밖에 없었으니 건축대사사의 자격

을 안을려면 건축사 협회의 추천으로 시장

의 인이 선정으로 이룩이 되고 있었으니

당시 건축비가 높고 신청할때는 남해 판공과

죽해 소화 판공 및 심지어 상수도 요금 납부 판공

까지 불허야만 했으니

이 당시에 대표적인 가건물은 세종로 세거의

의 옥제극장 (지급의 동화연세점) 김대 회관, 박용래

소아과 병원, 파르공회내의 호텔, 남산의 승의

여고와 신인백화점 (제안은행본점) 등이 있다